

건강검진 수진자 중 음주자의 음주의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김희진·윤지은·김상연·이선주·유미경·지선하

/ 연세대 보건대학원, 국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사용 장애는 일체감을 중요시하는 집단 문화와 음주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로 인해 발견이 늦어지거나 질환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음주의존도는 문제성 음주를 선별하여 고위험 음주자를 판별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WHO에서 개발된 AUDIT은 국내에서 DSM-IV 기준과 비교한 민감도와 특이도가 연구되어 있어 알코올 남용 및 의존 선별에 적절한 도구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검진 수진자 중 음주자를 대상으로 AUDIT으로 측정된 음주의존도를 조사하여 문제 음주자 선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서 그 분포와 관련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 서울 지역 일개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기 전 연구에 자발적 동의를 한 2985명 중, AUDIT 설문지에 빈 칸 없이 응답한 1668명 (남 1216, 여 452, 연령 20~78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존 국내 연구에서 절단점으로 제시된 바에 따라 AUDIT 점수 12점 이상을 문제 음주 의심군으로 정의하였다. 문진, 신체계측 및 설문지를 통해 음주의존도의 분포, 성별 음주의존도별 특성, 음주의존도와 관련된 요인들의 성별 비차비 값을 구하였다.

연구 결과 : 남성의 AUDIT 점수는 12.6 ± 5.8 로 여성의 6.0 ± 4.2 보다 높았고 ($p < 0.0001$), 음주량도 18.2 ± 28.9 g/주로 여성 5.5 ± 15.5 g/주 보다 많았다 ($p < 0.0001$). WHO에서 권고한 AUDIT 점수 절단점 (harmful use)에 해당하는 8점 미만인 경우는 남성 248명 (20.4%), 여성 339명 (75.2%)이었다. 국내 연구에서 제시된 12점 이상으로 문제 음주자를 의심해야 하는 경우는 남성 677명 (55.8%), 여성 45명 (10.0%)였다. DSM-IV에 의한 '알코올 사용 장애'를 의심하는 15점 이상인 경우는 전체 남성 중 36.6%인 444명, 전체 여성 중

4.0%인 18명이었고, 알코올 의존이 의심되는 26점 이상인 경우는 남성 24명 (2.0%), 여성 2명 (0.4%)이었다.

남성 문제음주 의심군의 평균연령은 42.7 ± 7.2 세로 정상군에서의 43.9 ± 8.5 세보다 낮았다 ($p=0.0102$). 여성에서도 문제음주 의심군 37 ± 8.3 세, 정상군 40.4 ± 8 세 ($p=0.0074$)였다. 여성 문제음주 의심군은 여성 정상군보다 자가 보고 월 소득액이 낮았으나 남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남성 문제음주 의심군에서, 일일 알코올 섭취량은 평균±표준편차 각 26.2 ± 36.1 g으로 정상군 8.1 ± 14.0 g 보다 많았고 ($p < 0.0001$), 여성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문제음주 의심군 28.0 ± 40.0 g, 정상군 3.0 ± 5.2 g). 남성 문제음주 의심군에서, 현재흡연자는 51.7%로 정상군의 39.5%보다 많았으며, 여성에서도 같은 경향이 보였다 (문제음주 의심군 흡연 비율 31.1%, 정상군 3.7%). 남성 문제음주 의심군에서는 교육받은 기간이 12년 초과인 경우가 74.6%로 정상군의 81.7%에 비해 적었다 ($p=0.0032$). 남녀 모두에서, 알코올 섭취량이 많을수록 AUDIT 점수가 높은 군 즉 음주 문제가 의심되는 군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문제 음주자 의심군에 속할 비차비가 가장 높은 관련 요인은 음주량이었으며, 남성에서 젊은 연령, 여성에서 현재 흡연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음주량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았으나, 음주량이 적으면서도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경우 그 관련요인을 추가로 찾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음주량에 따라 두 군으로 층화하여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배제한 음주량 이외의 관련 요인을 알아보았다. 음주량과 무관하게 남녀 모두에서 흡연은 문제음주 의심군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고, 여성에서는 낮은 연령과 관련성이 있었다. 음주량이 적은 군 여성에서는 수입이 많을 경우와 관련되어 있었다.

고찰 및 결론 :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한 수진자 중 음주자에서 문제음주 의심군은 남성 55.8%, 여성 10.0%를 차지했다. 흡연자는 음주 문제를 같이 가지고 있을 위험이 높다. 알코올 섭취량이 많을수록 음주 의존도가 높으나, 음주량이 적은 군에서도 흡연, 연령, 수입 등의 요인이 관련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병원 내원자, 환자 또는 음주 문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조사한 음주의존도 연구로서, 음주 관련 요인 분석 중 음주량이 적은 군에서의 관련 요인도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일반인에서도 음주 문제 의심과 그 선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단면연구로서 관련 요인들과 음주 의존도 양상의 인과관계를 잘 알 수 없으며, 자료의 연령 분포에서 청장년에 비해 노인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연령과 음주 의존도 양상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건강 관심도, 사회경제적 수준 등에 있어서 지역사회 인구와 다를 수 있다. 향후 음주 의존도 관련 요인 및 그 경과를 포함한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이 연구는 서울시 대사중후군 연구비(R&BD 10526)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